

공포의 AI, 올해는 무사한가?





사) 한국오리협회장 김만섭

며칠 전 신문을 보니,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광우병 걸린 소고기와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에 걸린 가금류라는 기사가 났었다.

그동안 협회를 비롯한 정부와 유관기관, 시·

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던 AI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었지만, 크게 빗나가고 만 것이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AI를 치명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오리업 종사자들은 AI 발생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해가 컸던 2003년 겨울과 지난해 겨울을 잊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방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까지 확대해 가금류를 비롯한 개, 돼지, 소, 고양이까지 발생 지역 근방의 가축을 거의 몰살한 데다, 7차에 걸쳐 AI가 발생한 지역이 굉장히 산발적이어서 피해정도가 심했다.

더욱이, 오리는 생리적 특성상 AI 감염시에도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은연 중에 AI를 전파시키는 매개체라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기도 했지만 현재 철새 외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함께 역할을 분담키로 하였다.

또한 방역기간 동안, 과거 AI 발생했거나 병원체가 검출되었던 14개소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오리 임상관찰을 중점 실시하고, 특히 종오리 사육농가(70개소)의 산란을 저하 여부 등에 대한 일일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본회에서 오는 11월 7일(수)에 실시하는 AI 등 질병예방교육에 참여한 사육농가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질병이나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에 정부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농가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와 단체, 시·도 기관이 나서서 AI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오리사육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다.

우리 사육농가들이 먼저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소독을 생활화 한다면 상당 부분의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AI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상당히 부정적인 만큼 발병을 최대한 막는 방법만이 오리산업을 지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